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자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2013년 5월 2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대진 산업정책과장(2110-5111), 송용식 사무관(5348)
오승철 기업협력과장(2110-3950), 양재훈 사무관(3980)

"엔저위기 극복의 핵심은 기업 생산성 혁신"

▶ **산업부장관 · 중기청장 · 경제5단체장 간담회 개최**

▶ **민관공동으로 생산성 향상 위한 「산업혁신운동 3.0」 전개하기로**

1. 간담회 개요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함께 5.2(목)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짐

【산업부 - 경제5단체 간담회】

○ 일시·장소 : 5.2(木) 07:30~09:00, 강남메리어트호텔 보드룸(3층)
○ 참석자(총8명)
- 정부측 : 산업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산업정책실장
- 경제단체 :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희범 경총 회장

□ 이 자리에서 윤장관과 경제5단체는 **엔저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기업 생산성 혁신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뜻을 모음.

○ 아울러, 금년 기업의 투자계획과 고용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다짐.

2. 생산성 혁신으로 엔저 대응 : 「산업혁신운동 3.0」

□ 윤장관은 "최근 엔저 등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경제주체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또한, "지난 5.1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단기 처방**을 내놓은 만큼, **이제는 경제계가 기업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윤장관은 과거 일본의 경우에도 지속되는 엔고 상황에서 민관공동의 생산혁신과 고부가가치화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했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들도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산업혁신운동 3.0』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함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중소-대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 중소기업은 **현장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위한 자체 노력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하며,

- 대기업과 1차 협력사들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수익성 제고와 연계될 수 있도록 **상생노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

□ 이에 대해 경제단체장들은 엔저 장기화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만큼, 마른 수건을 짜고 또 짜내는 노력과 함께 위기상황을 오히려 **우리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

○ 또한, 『**산업혁신운동 3.0**』 **취지에 공감**하고, 경제단체가 적극적으로 운동을 전개·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힘

○ 특히,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엔저, 노사·환경 등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이 없어 우려**가 되며, **지금은 허리끈을 조여 매고 함께 뛰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

<산업혁신운동 추진계획>

○ **대한상의**에 "**중앙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산업혁신운동을 총괄하고, **하부**에 "**단체별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운영

○ 전경련·무역협회·경총·중기중앙회·지역상의가 적극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전파**

○ 전자, 자동차, 기계 등 **3개 업종에 대해서 우선 추진**

□ 한편, 윤장관은 "엔저 대응을 위한 업종별 대책"을 5월말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3. 규제 · 투자 등 관련

□ 경제5단체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 다만, 노사나 환경 분야에서 일부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

□ 이에 윤장관은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은 시대적 흐름인 만큼 이에 **경제계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이 선행될 수 있도록 재계와 노조가 적극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

○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입지·환경 등의 분야에서 덩어리 규제를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힘

□ 끝으로, 윤장관과 경제5단체장은 지난 4월 발표한 30대그룹의 금년 **투자·고용계획(149조원 투자, 12.8만명 고용)**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 계획(12조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송용식 사무관(☎ 2110-53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산업혁신운동 3.0 개요

[첨부 2] 경제5단체장 발언 요지

첨 부 1 산업혁신운동 3.0 개요

□ 추진 배경

○ **중소 협력업체의 혁신 역량이 낮은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동반성장 정책이 **2·3차 협력사까지 확산되는데 한계**

* 중소기업 노동 생산성은 대기업의 28%('11) 수준으로 격차 지속

○ 70~80년대 **공장새마을운동**의 **자조 정신**을 계승하고, **동반성장 활동**을 대기업-1차 협력사 관계에서 **2·3차 협력사까지 확산**

【산업혁신운동 3.0 개념】

	산업혁신 1.0		산업혁신 2.0		산업혁신 3.0
(주 체)	개별 기업	+	대기업·1차 협력사 중심	⇒	2·3차 협력사 중심
(수 단)	공장새마을 운동		동반성장(성과공유제)		경영·환경·공정혁신 + 성과공유제

□ 추진 계획

○ **(추진체계) 대한상의에 "중앙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산업혁신운동을 총괄

○ **(주요내용)** 참여기업 대상 **현장진단**을 통하여 취약부분을 도출하고, **경영·공정·생산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의 지도하에 혁신활동 수행

○ **(재원)** 대기업들의 **동반성장투자재원 활용**

□ 향후 계획

○ **중앙 추진본부 조직(5월중)**

○ **산업혁신운동 3.0 발대식**(6월중)

첨 부 2 경제5단체장 발언 요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 기업의 사기를 올리고 격려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임.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나 환경 등 분야에서의 과도한 규제로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

○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에는 이러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 같음.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요청 드림. 우리 기업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에 적극 노력하며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서 투자와 고용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음.

○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투자확대가 중요함. 투자여력을 가진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함.

○ 엔저현상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 추진이 필요함.

○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적정한 임금수준과 노사협력이 중요하다고 봄. 최근 정년 60세 의무화, 통상임금 소송, 공휴일 법률화 등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력운용을 어렵게 하고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노사문제는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해를 달리하는 노사 양 당사자가 있는 문제이므로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

○ 우리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함. 1차 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중소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대한상의가 산업부와 함께 산업혁신운동 3.0 중앙추진본부를 5월 중순에 설치할 예정임. 대한상의는 산업혁신운동 3.0이 우리 산업계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허창수 전경련 회장>

○ 최근 급격한 엔저로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

'13.4월 전경련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엔저 영향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미 적자구조*에 직면해있으며, 원-엔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평균 1.1%p 하락

*** 손익분기점 원-엔 환율(원/100¥)은 1,185.2원으로 현재 환율 1,132.5원보다 52.7원이나 높음**

○ [단기대책] 기업들은 자체 대응의 일환으로 원가절감, 환헤지 상품 투자 확대, 수출단가 조정 등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급격한 엔저 영향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 [장기대책] 생산성 혁신을 통한 기업체질 개선,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 기업환경 개선 등 필요

- 엔저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업들은 가격경쟁보다는 품질경쟁으로 승부, 특히 미래기술을 선점함으로써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해야 하므로, R&D 투자에 대한 선제 지원 등 필요

- 최근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되고 있지만, 여전히 2·3차 협력사에게는 동반성장의 온기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있어 이들 업체들의 경영난 지속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2·3차 협력사의 작업환경, 생산공정 개선 등 자발적 혁신을 지원하고, 성과공유를 연계하는 '산업혁신운동 3.0' 캠페인 추진

- 노사관계의 경쟁력과 고용유연성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니만큼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이 시급하며, 최근 논의되는 대체휴일제 등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 필요

- 경기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저해 규제를 해소하고, 조선 등 불황업종에 대한 지원 필요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엔저 현상 지속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급격히 추진하고 있음.

○ 이들 법안들은 기업의 손발을 묶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마저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악화되는 대외여건에도 경제계가 투자 활성화와 고용률 70% 달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주기를 기대함.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 산업부가 제시한 '산업혁신운동 3.0'은 단기적인 엔저 대응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응용과학이 발전할 수 있듯이 2·3차 협력사가 견실해야 우리나라 대표 수출 기업들의 세계 시장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음.

○ 이번 산업혁신운동이 우리 제조업 전반의 창의적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新상품/新서비스 개발을 촉진시켜 중소·중견·대기업이 함께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 엔저로 인해 수출중소기업들은 가격인상이 불가피하여 수출물량이 감소하거나, 환차손을 감수하고 수출을 진행하고 있음.

-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해 제3국에서 일본제품과의 경쟁에서 불리, 수출감소로 귀결

- 수출 중소기업 중 76.3%가 수출 감소 원인으로 환율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를 지적
- 엔저 피해기업들은 매출 및 이익감소, 재무제표 악화로 금융기관들의 기존 대출자금 회수 이중고 직면해 있음.

○ 따라서, 엔저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 회수 자제가 필요하며 무역금융 지원 확대, 일본 이외에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업혁신운동 3.0은 중소기업의 자발적 혁신의지가 중요한 만큼, 중기중앙회는 이를 위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과 중소기업 혁신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음.